

냈다네. 때때로 저 태양의 오롯이 둥근 형상이 길 끄트머리에 나타나 길 전체를 영롱한 빛으로 물들이기도 했지. 사프란색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뭇잎은 도파즈나 에메랄드가 광채를 내뿜듯 휘황하게 빛났으며, 이끼로 뒤덮인 갈색 나무줄기는 마치 고대의 청동 기둥으로 변하는 것만 같았어. 그러면 일찌감치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고자 조용히 물러나있던 새들은, 다시금 밝아오는 서광을 보고 새삼 놀라 수천수만 가지 노래를 지저귀며 다 같이 태양에 인사를 건넸다네.

이렇듯 전원에 묻혀 여흥을 즐기고 있노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밤이 엄습해오는 일이 허다했네. 하지만 깨끗한 공기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우리는 숲 한가운데 있는 움막 아래서도 잠을 청할 수 있었지. 도둑 따윈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서도 말이야. 다음 날이 되어 각자 자기 오두막으로 돌아가 보면, 집은 두고 온 그대로 있었네. 그때까지만 해도 상업이랄 것이 거의 발전하지 않은 이 섬에는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넘쳤으니, 많은 집들은 열쇠로 문을 잠그는 법이 없었고, 대부분의 크레올 사람들에게 자물쇠라는 것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네.

허나 일 년 중 풀과 비르지니를 보다 큰 환희에 들뜨게 해주는 날은 따로 있었네. 바로 두 어머니의 생일잔치가 있는 날이었지. 비르지니는 생일 전날이면 잊지 않고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케이크를 구워두었고, 이 케이크를 벗